

종합·해설

대선후보 득표 50% 인구편차 감안 보정

한, '민주 탈호남' 보고만 있을텐가

남경필·정두언 "박근혜·영남권 중진들 수도권 출마 나서라"

■ 민주당 공직후보 선출방안 최종안 내용과 전망

총선 지역구 후보 15%를 여성에 할당

계파별 입장차 커 의사결정 진통 예상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장정배)가 최종 마련한 공직·당직선거 개혁 초안은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기본으로 하되 인적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당직 선출시에는 정당제의 취지를 살려 대의원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선후보 선출=일반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하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득표율 산정시 투표자의 50%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편차를 감안한 보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즉, 득표 결과를 지역 인구비례로 보정한 것을 2분의1, 득표 결과 그대로를 2분의 1 비중으로 각각 반영토록 한 것이다. 투표 방식은 현상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전라공천지역(30%)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배수

나 4배수로 후보를 1차 압축한 뒤, 70% 지역은 완전국민경선, 나머지 30% 지역은 배심원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배심원제 적용 지역의 경우 배심원제 평가 30%, 완전국민경선 70% 비율로 점수(득표수)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경선으로 인한 인력 및 자금 낭비를 막기 위해 1위 후보의 지지도가 무응답층을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이고 1위와 2위 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가 2명 후보일 때 30%포인트, 후보가 3명일 때 20%포인트, 4명 이상일 때 15%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공천심사위가 단수후보 추천도 가능토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국민경선으로 30%, 각종 단체와 정책협약경선으로 30% 이상을 뽑고 중앙위원회에서 30% 이상 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남녀 인원을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포함하고, 기존 연령은 35세 미만으로

■ 민주당 개혁특위 공직후보 선출 초안

공직후보 및 당직	선출방안
대선후보	완전 국민경선(현장투표+모바일 투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라 공천지역 30% 제외)	완전국민경선 지역 70%, 배심원제적용 지역 30% (배심원제 적용지역은 완전국민경선 70%+배심원제 평가 30%)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완전국민경선(청년·영남 등) 30% + 정책협약경선 30% 이상 + 중앙위 선출 30% 이상
대표 및 최고위원	중앙대의원 20% + 당비 납부 당일 30% + 일반당원 50%

한다는 것을 다수안(소수안은 30세 미만)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서 당 기여도를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다.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대의원 20%, 당비납부 당일 30%, 일반 당원 50%의 비율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우대안=여성의 정치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의 15%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라고, 경선시에도 20%의 가산점을 주되 해당지역 당선경험 유무에 따라 가산점을 10% 또는 아예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의원의 50%는 여성에 할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기타=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선거 4개월

전(다수안) 또는 1차 공천신청 마감일 전(선거 60~90일 전, 소수안)으로 했으며 사퇴 이후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직접 지역위원회를 관리·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다.

또 공천심사위 구성시 외부인사를 50%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11일 "개혁특위 안을 조문화하는 작업 등을 감안하면 1주쯤 후에 최고위에 제출될 것"이라며 "당헌 및 당규를 개정 사안인 만큼 최고위와 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파별, 지역별, 성별로 입장차가 커 초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정세균 최고위원 측은 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의 공천안을 선호하는 반면 손학규 대표 측과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일반국민이 경선에 대거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3선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수도권 진출 선언 이후 민주당 중진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중진들도 향후 정치권에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의 영남 출마 때만 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좌불안석인 것은 그만큼 김 의원의 '탈 호남' 선언의 여파가 크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19대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지역 기득권' 타파와 함께 물갈이 공천을 시도할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위기가 깊어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남경필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 중원싸움에 돌입했다. 한나라당도 중원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인물·행동양상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탈 호남'에 맞서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수도권 출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살신성인'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의 '탈 호남'에 한나라당도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전 대표부터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한나라당 의원이 대거 포진한 만큼 민주당과 같이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

렵다"면서 "다만 중진들의 자발적 불출마를 통한 자기희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의원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자구책' 성격이 다분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면에서 한계점에 온 분들이 자신의 명예나 당의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서울의 강남벨트와 영남권과 같은 한나라당 텃밭에서의 물갈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연고를 버린다는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당직 인선 갈등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유승민 최고위원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는 재선인 김정권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에 동의를 구했으나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이 '캠핑인사 사무총장 기용'에 거듭 반대, 진통을 거듭했다.

홍준표 "공천, 내년 1월 논의해도 안늦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지금 공천보다는 서민정책을 한번이라도 더 말할 때"라며 "공천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1월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천 문제가 정책보다 앞서기 시

작하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고 당의 변화·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공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대해 일단 자

제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나경원 최고위원은 "공천이 시작되면 다른 논의가 사라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천 원칙은 정해놓아야 한다"며 "공천에 관한 원칙 문제는 7월말께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인물과 행동양식 등도 필요하다"며 "공천 관련 원칙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연석회의 제안 야 4당 '시큰둥'

"통합 아닌 야권연대부터 하자"

민주당의 야 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중소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를 위한 최종합의문까지 만들어놓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폐기하고, 4·27 재·보선 때도 정책합의문을 만들었다가 어진 전례가 있다"며 "통합이 아닌 야권연대부터 시작해 착실하게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은 "민주당과는 현재 진행 중인 진보정당 창당이 이뤄진 다음에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협력의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차라리 선거연대가 현실적이라고 이견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의 제안이 선거연대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회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회의 성격에 따라 연석회의 성사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노회찬 새로운 진보통합 정당 추진위원장은 "논의의 폭을 통합으로 한정하면 대화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 귀국 일성 뭉까

개각 등 현안 산적...내일 여 지도부와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 과거 어느 순방 때보다 기분 좋은 귀국길인 듯하지만, 청와대 집무실을 비운 열흘간 해결되지 못하고 쌓인 국정 현안들을 생각하면 출가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인사관자 부재 중에 사표를 낸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임 선임 문제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해 김 총장의 사표를 수속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4일 개 사정 라인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통일 장관의 개각 포함 여부도 관심이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총장·

법무장관·민정수석만 바꾸고 8월 이후에 소폭의 개각을 하는 '2단계 개편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형식의 오찬 회동을 갖고 주요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청와대 역시 "당이 중심임을 인정하되 원칙에 반하거나 포퓰리즘적 사안에는 분명히 반대할 것(임태희 대통령실장)"이라고 천명한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귀국 후 '일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름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산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채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8코너)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매매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매 2007년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오마일 23평형 3개동, 케오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련원형치,수련원기도원형치 여유대지있음,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매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대지: 1038㎡,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산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만원)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메리카우후문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책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담: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로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라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리오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신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3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